가는데만 한 시간…전남, 마트·시장 가기 어렵네

교통 여건 '열악'…판매시설 '교통 접근성' 전남 3년 연속 최하위

전남 30분 내 대규모 점포 접근 가능 인구 48.3%…전년비 4%P↓

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섬도 많은 전남이 3년 연속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가려면 각각 평균 1시간 20분, 1시간 가량이 걸렸다.

23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교통접근성지표'에 따르면 대중교통·도보를 활용한 대규모 점포 평균 접근시간은 일평균(오전 6시~오후 8시) 광주 16.17분·전남 79.60분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조사 때보다 광주 1.6분, 전남 18.0분 늘어난 수치다.

전남지역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접근성은 관련 조사를 벌인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대규모 점포 대중교통 접근시간은 28.63분으로, 전남은 이의 2.8배 수준에 달한다.

반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부산이 1위로 꼽혔지만 이듬해 서울(12.25분)이 최상위에 올랐다.

전남은 대형 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접근성도 3년 연속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열악했다.

대중교통·도보 전통시장 접근시간은 평균 62.66분으로, 1년 새 20.2분 늘어났다.

반면 광주 전통시장 접근시간은 16.04분으로, 전국 평균(24.11분)보다 8분 가량 짧았다.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시간이 늘어난만큼 판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민 비율은 적었다.

전남에서 대중교통·도보로 30분 이내 대규모 점포로 접근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48.3%에 불과했다. 전남도민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인구만 30분 안에 대규모 점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전년(52.3%)에 비하면 접근 가능 인구 비율이 오히려 4%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전남지역 대중교통·도보로 30분 이내 전통시장에 갈 수 있는 인구 비율은 57.5%로, 역시 전년보다 4%포인트 감소했다.

30분 이내 대규모 점포 접근 인구 비율은 제주(46.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전통시장 경우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30분 이내 접근 인구 비율은 대규모 점포는 97.0%·전통시장 97.4%로, 두 부문 모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대규모 점포 82.8%·시장 83.7%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남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적은 점포 수'와 '열악한 교통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전남에서 15분 이내 대중교통·도보로 갈 수 있는 버스터미널 수는 지난 2018년 0.29개에서 이듬해 0.19개로 감소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공산품과 식료품 대다수 부문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전남 지역민들은 열악한 판매시설 기반과 고물가에 시달려야하는 상황이다.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하나로마트가 꾸준히 유통망을 넓히고는 있지만 전남도민들의 소비 접근성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나로마트는 지역 독점 논란 속에서도 농어촌지역에 공산품과 생필품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때로는 마스크 공적 판매와 지역 농가 판로 마련 등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농협 하나로유통 호남지사에 따르면 지역 하나로마트 수는 2019년 336개(광주 28개·전남 308개)→2020년 339개(광주 31개·전남 308개)→2021년 342개(광주 30개·전남 312개) 등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남 하나로마트 수는 312개로, 전남 1개 시·군당 14.2개 점포가 있는 셈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마철 대비 '환경 정화'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은 지난 22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길거리의 쓰레기와 나뭇잎 등을 치우며 장마철에 대비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이마트, 최대 40%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7월6일까지 2주간

이마트는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오는 7월6일까지 2주 동안 국내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수산대전은 오는 29일까지 1주차와 30일~7월6일 2주차로 나눠 진행한다. 행사 기간 1인당 20% 할인(최대 1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마트 자체 할인율까지 더하면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주차 할인 대상 품목은 오징어, 고등어, 참조기, 전복, 장어, 멸치 등이다. 이들 품목은 신세계 포인트 회원일 때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2주차에는 제주 은갈치, 고등어, 굴비, 바지락, 새우,멸치 등이 할인 가격에 선보여진다.

이마트는 먼저 오는 29일까지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른 국산 생오징어를 25% 할인 판매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오징어(생·중품·1㎏) 21일 기준 평균 도매 가격은 1만4180원으로, 전년 같은 날(1만1175원)보다 약 27% 가량 올랐다.

이마트 측은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의 경우 6월부터 주 어획철이나 아직 인근해 수온이 오르지 않아 어장 형성이 부진해 어획량이 줄었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전복과 참조기는 40% 할인 받을 수 있고, 장어와 생고등어는 2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전력그룹사들, 경영진 성과급 반납

1직급 이상 간부도 동참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가 모두 경영진 및 주요 간부의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

전력그룹사 한전KDN은 경제위기 및 전력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장현 사장 등 경영진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납하고 1직급 이상 주요 간부도 동참한다.

사진·영상·기사 제보
카카오톡에서 광주일보 검색
kwangjulbo1@naver.com

한전KDN은 또 "불요불급한 투자를 축소·이연하고 내부 생산성 제고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 지속적인 경영 효율을 추진할 것"이라며 "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ICT 신기술·신사업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이 지난 20일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1직급 이상 주요 간부의 성과급 반납을 가장 먼저 결정했고 이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전KPS, 한전KDN,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한국전력기술 등이 동참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재무 상황이 악화돼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는데 한전과 이들 9개 자회사가 대상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성장 잠재력 큰 '유망 중기' 키운다

30일까지 소재 시·군 접수

전남도는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2 유망 중소기업' 모집에 나섰다.

모집 대상은 전남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3년 평균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제조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포함)이다. 다만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10억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바라면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거쳐 7월 중 유망 중소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에는 3년 동안 다양한 우대 혜택이 있다. 전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시설자금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운영자금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자 지원을 늘려 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췄다. 2년 거치 일시상환은 2.0%를 지원했으나 2.5%로,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1%였으나 1.4%로 지원율을 높였다. 이밖에 판로와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김차진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남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번 모집에 도내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